

구로사와 아키라의 <8월의 광시곡>를 보고 —전쟁표상의 한계와 ‘피해의 역사’를 중심으로

일본어학과 2014102834 강유진

누군가 내게 최근에 본 가장 충격적인 영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8월의 광시곡>이라 답할 것이다. 연출, 연기 등 영화적인 면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영화에 담겨 있는 감독의 전쟁에 대한 사상과 인식에 충격 받았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을 당한 피해국이다’ 이것이 이 당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던 방식이었다. 일본은 동아시아 등지에서 저지른 학살과 진주만 공습 등 스스로가 저질렀던 수많은 전범을 잊은 채, 원폭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스스로를 순수한 피해국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일본이 왜 그렇게 전범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를 묻는다면, 별다른 말을 할 필요 없이 <8월의 광시곡>을 가리키면 된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지만, 어찌됐든 역사에 대한 현대 일본 정부의 대응과 여론을 ‘대다수의’ 일본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면, 이들이 과거 일본의 전범과 당시의 전쟁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이 작품에서 잘 드러나 있다.

나가사키에서 부근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무라세 사치코 분)는 여름방학이 되어 놀러온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이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하였는데, 편지의 내용은 바로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하와이로 이주한 할머니의 큰 오빠가 현재 위독한 상태이고 숨을 거두기 전에 여동생인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며 손자들과 하와이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너무 오래 전에 헤어진 큰 오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에 동봉된 사진 속 큰 오빠의 모습이 진짜 큰 오빠의 모습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갈팡질팡한다. 결국 할머니는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목숨을 잃었던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가겠다고 편지하고, 하와이에서 돌아온 할머니의 아들과 딸은 편지에 원폭으로 죽은 할아버지를 언급한 것이 할머니의 오빠를 언짢게 했을 거라며 화를 낸다.

한편 하와이에서 편지를 받은 큰 오빠의 아들인 클라크(리처드 기어 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를 찾아 일본으로 오는데...

구로사와 감독이 가진 전쟁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나가사키로 할머니를 만나러 온 미국인 클라크가 할머니에게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장면이다. 이 작품에서 클라크는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로, 원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을 상징하는 할머니에게 그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원폭 피해에 대해 미국은 책임이 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원폭의 가해국과 피해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상기시키고 원폭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로사와

감독의 문제점은, 원폭에 대해서 미국만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복잡한 인과관계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전쟁이었다. 특히 일본의 원폭 피해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원폭의 가해자로 미국을 지목하면 결국 일본 스스로도 전쟁의 시발점을 제공한 가해자로서의 과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8월의 광시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원폭을 당한 피해자로서 그 피해만을 호소하고 있다. 굉장히 평면적이고 편협한 시선으로 연출된 작품이라 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클라크라는 인물의 설정과 활용이었다. 클라크는 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 어느 쪽에도 속해있으면서 동시에 속해있지 않다는 위치 덕분에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의 클라크는 그저 가해자로서의 미국을 대표하며 사과를 하는 수단적인 인물로 그친다. 일본과 미국 양국을 대표할 수 있는 클라크와 같은 교집합적인 입장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지고, 그가 할머니와 대비되면서 그 관계를 통해 전쟁과 원폭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이라고 해야 하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큰 오빠의 부고를 들은 할머니가 그날 저녁 천둥번개가 치는 폭우 속에서 미친 듯이 내달리는 모습이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비를 맞으며 달리는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쫓아가는 손자들의 모습은 마치 원폭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트라우마와 광기가 그대로 내비치는 듯 한 강렬한 장면이었다. 사실 감독이 원폭이라는 주제를 다각적인 시점으로 잘 풀어냈다면, 이 후반부의 장면에서의 할머니는 국가로 의해 원폭이라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온전한 피해자 개인으로 의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이 풀어낸 서두의 이야기가 지극히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인, '일본의 일본에 대한 위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트라우마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인과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피해에 잠겨버린 일본의 피해의식으로 대변되는 것이다.

여러모로 아쉬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영화였다. 원폭의 피해를 직접 겪은 국가로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다루는 예민한 주제를 선정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가해자로서의 기억은 지워버렸다. 전쟁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클라크라는 인물의 입체화만 있었다면, 원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로서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